

기금 배분·행사 개최... 문화예술사업 총괄

■ 내년 출범 광주문화예술재단 무슨일 하나

정책기능 강화...인력·기금 확보에 성과 달려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재)광주문화예술재단(이하 문화재단)과 관련, 위상과 역할 등에 문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문화재단을 운영중인 곳은 시·도 광역 단체 12곳으로 광주는 지금까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광주문진위)가 재단 역할을 해왔었다.

◇기금 배분, 문화행사 개최=19일 광주시가 밝힌 '광주문화재단 설립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폐지되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재)광주공연예술재단의 역할을 그대로 흡수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견인할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배분 사업과 지역협력형 사업 등 기존 문진위 사업

을 그대로 진행하며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정음성극제음악제, 전국여성합창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조직된 공연예술재단의 역할도 수행한다. 또 성남아트센터 등을 운영하는 성남문화재단처럼 올 3월 개관한 빛고을문화관을 시범적으로 위탁운영하게 된다.

문화재단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곳은 각종 문화정책을 개발할 정책기획실이다. 여기에 문화사업팀과 축제사업팀 등이 대형 행사를 개최하게 되며 당초 추진했던 문화관광공사 역할을 대신할 조직도 꾸리게 된다.

재단 인원은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20여명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 재단의 사례를 살펴본 뒤 문화재단 설립준

비단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문진위 등 두 단체가 해산되면서 문진 위원장과 문진위원, 공연예술재단 이사장 등은 물러나게 되며 실무진들은 업무 수행능력과 노하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문진위에는 위원장을 포함 8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올초 출범한 공연예술재단의 직원은 이사장 포함 6명이다.

한편 이번 재단 출범과 관련한 TF팀에는 위원장을 맡은 박선정씨를 비롯, 김재규·박호재·김지원·김기곤씨 등 외부인사들과 광주문예회관 관계자등 12명이 참여했다.

◇인적구성 세심한 신경 써야=문화재단 출범과 관련해 지역예술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문진위가 기금 배부 창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내외부에서 모두 흘러 나왔던 터라, 정책 기능을 강화한 재단 출범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문화계를 아우를 매머드급 조직이 탄생하면서 재단의 인적 구성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벌써 특정한 정설이 흘러나오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재대로' 된 문화전문가를 뽑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금 확보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광주시문화기금은 50억원으로 시·도 문화재단 가운데 꼴찌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출범 때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기금을 출연한 적이 없는 상태. 재단은 기금 목표를 500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열악한 광주시 재정에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또 위탁 운영을 맡게 될 빛고을시민문화관의 경우 수익구조를 찾는 것도 난제다.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빛고을 시민문화관의 올 예산은 15억원이며 재단은 기획 공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한편 재단은 광주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시립예술단체 운영은 연구와 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수박 첫 출하 '푸랭이'로 불리는 광주의 명물 무등산 수박이 20일 올해 첫 출하했다.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자락에서 재배되는 무등산 수박의 올 생산 목표는 3000톤으로, 16가구의 농가에서 1억5000여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가격은 8kg 짜리 2만원, 16kg 10만원, 20kg 18만원선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전대 '손학규-정세균 연대론' 왜?

"3자 필패...조직·비람 합쳐야" 정 전대표측서 제기

민주당 486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세균 전 대표 측이 '반(反) 정동영 연대'를 명분으로 내걸고 '손학규-정세균 연대론'을 들고 나왔다.

지지가 일부 겹치는 손학규·정세균 전 대표가 손을 잡아야 정동영 고문의 당권 탈환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이른바 '3자 필패론'이 이들이 내건 명분이다.

하지만, 이는 정 전 대표의 당 대표 사퇴 이후 빠지는 지지율로 불안감을 느낀 486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미는 후보가 당권을 잡지 못하면 당 전면에서 밀려나게 됨은 물론이고 공천

에서 배제될 것이라 우려를 갖고 있다.

이들 80년대 운동권 그룹에는 이번 전대를 통해 정 고문을 상징으로 하는 비노(非盧) 성향의 전문가그룹을 밀어내고 세대교체를 이뤄내자는 목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 전 대표 캠프의 좌장 격인 김진표 의원과 조영석·최재성 의원이 손 전 대표를 찾아가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486의 상당수는 내심으로는 정세균 전 대표의 대선 후보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어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가 지금까지 대선후보로서 단

한 번도 검증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특히 정 전 대표 본인도 대선에 나선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86의 '손 전 대표 주저앉히기'는 진실성도 신뢰성도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평가다.

이와 관련, 손 전 대표의 한 측근은 19일 "정치공학적인 발상은 있을 수 없다"며 "정 고문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친노·486이 현실적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중도성향 의원은 "조직에서 우위에 있는 정 전 대표 측으로서의 바람을 타고 있는 손 고문의 지지세와 정 고문의 잠재력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전대 결선투표에서 지지선언을 하든 간에 결국 힘을 합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심 6m 확보 청와대 지지 있었나" "영포회 부분은 방송서 빠져"

PD수첩 '4대강' 범정심리 내용

MBC PD수첩이 지난 17일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영하려다 불발된 것과 관련해 같은 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각각당할 국토해양부는 법정에서의 심리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재구성한 법정 공방이다. ▲정부가 '비밀탐'을 구성했다는 부분이 방송되는지=국토부가 비밀탐이 아니었고 임시

TF(전담팀)였다고 주장하자 재판장이 비밀탐이라고 보도되는지 묻고 PD수첩은 보도 때 비밀탐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토부가 보도자료에 비밀탐이라는 문구가 있고,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 보도해 심리가 열리는 이 시각에도 허위사실이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심 6m 확보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PD수첩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심 6m 확보 배경에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TF에 청와대 행정관이 1~2차례 참석한 사실만 있을 뿐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로 인해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4개월을 소급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PD수첩은 영포회라는 부분은 방송에서 빠져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이 보도자료에 있는 영포회 부분이 방송에서 빠지는 것이 확인하자 그렇다고 밝혔다. /연필뉴스

상반기 국회의원 입법성적

광주·전남 김동철 1위

18대 국회 전반기 동안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중 김동철 의원의 입법 성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공무원노조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임기 초부터 6월 말까지 전반 임기 동안 광주·전남 국회의원 19명 중(장병완 의원은 7·28재보선에 당선 돼서 제외) 김동철 의원은 전체 54건 법률안 발의에 입법 점수 134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재균 의원이 45건 발의에 입법 점수 100점으로 2위, 우윤근 의원이 34건에 89점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광주·전남 의원 입법 평균 점수는 52.3점이었었다.

전국 국회의원 중에서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510점으로 1위,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이 376점으로 2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244점으로 3위를 각각 차지한 반면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0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8대 국회의원이 전반기에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5천886건으로, 17대 전체 회기 동안 의원이 발의한 5천 728건을 이미 넘어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대한항공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국내 최고급 호텔, 5성급 레스토랑, 100% 국내산 농산물만을 사용합니다.

- ▶ 1. 객실: 100% 국내산 농산물, 국내산 와인
- ▶ 2. 요리: 100% 국내산 농산물, 국내산 와인, 100% 국내산 농산물
- ▶ 3. 서비스: 100% 국내산 농산물, 국내산 와인, 100% 국내산 농산물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02-2671-1189